

# 韓國産業構造의 再編成에 關한 研究

高 南 旭

## I

長期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을 通하여 우리 나라는 經濟構造 및 産業構造面에서 그 自體 質的 量的인 規模擴大를 가져 왔고 한편 生産函數의 變化를 通하여 諸市場(生産物市場, 資本市場, 勞動市場)間的 均衡關係를 이룩하여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다.

그러나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80年代의 高度産業社會의 實現을 指向함에 있어 激變하고 있는 國際經濟의 情勢와 先進諸國의 産業構造上의 變革, 그리고 顯在化되고 있는 資源「Nationalism」問題 등 새로운 産業發展의 制約條件 등을 감안할 때 所望스러운 産業構造 및 産業體制의 再編成에 關한 諸問題를 研究하는 것은 重要한 課題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當面한 周邊經濟環境下에서 더욱 熾烈해 가는 國際貿易의 惡條件 위에서 開放經濟 속의 主導의 位置를 確保하는 일이 時急하다. 따라서 「成熟年代」를 맞는 우리 나라는 經濟體制와 構造가 安定基調의 바탕 위에서 지난 高度成長의 步調를 維持하여 成熟段階으로 올라서야 하는 것이다. 經濟가 高度로 成長함에 短期的으로는 産業間의 不均衡을 초래하나 長期的으로는 投資構造가 高度化되고 生産의 迂廻化됨에 따라 經濟構造 및 産業構造가 擴大되어 必然的으로 經濟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한 産業構造再編成이 要求된다.

産業構造高度化는 보다 나은 生産函數으로 移動을 뜻하는 것이고 生産力의 發展을 위한 必要 不可缺한 條件이면서 經濟成長을 効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基本要件이 되는 것이다.

체너리(H. B. Chenery)는 「産業의 構造的變化는 現在의 成長實績보다도 未來의 成長速度를 上昇시키기도 하고 遷延시키기도 하여 未來의 成長率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sup>1)</sup>고 하였다.

즉 經濟成長은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고 經濟成長의 一定한 段階는 이에 對應하는 一定한 型의 産業構造를 가져 온다.

1) H. B. Chenery: Targets for Development. p. 4.  
Economic Development Report No. 153, Harvard Univ., 1970.

## 2 는 문 집

「C. Clark의 經濟進歩의 諸條件」<sup>2)</sup>이나 「W. Hoffmann의 工業化의 類型과 段階」<sup>3)</sup>, 「H. B. Chenery」에 의한 一連의 著作<sup>4)</sup>은 모두 이에 關한 實證的 研究의 成果를 提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産業體制를 위한 産業構造를 國民經濟의 政策目標에 合致되는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 調整하기 위한 課題가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産業構造再編成에 關한 綜合的인 分析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韓國經濟의 當面課題를 高度成長에 두고 長期經濟開發計劃에 의하여 推進해 왔던 産業構造形成의 基盤을 前提로 하여 現實的으로 대두되고 있는 資源과 輸出, 成長이라는 극히 限定된 要素에 問題를 局限하려고 한다.

따라서 産業構造形成에 關한 基本概念과 原理를 前提로 하여 産業構造「모델」를 構想하기 위한 몇가지 基本的인 假定을 設定해 둔다.

- (1) 韓國의 産業構造를 決定하는 基本要因은 資源 輸出 및 産業成長率이다.
- (2) 輸出은 産業化 促進의 必須條件이며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經濟成長에의 輸出依存度가 계속 擴大될 것이다.
- (3) 經濟의 高度成長은 産業化政策의 當爲性 前提이며 앞으로도 계속 過去와 같은 成長을 維持하여야 할 것이다.
- (4) 技術 및 資本은 漸進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産業構造政策上의 制約은 없다

## II

II-1: 經濟成長의 過程은 産業構造의 變動을 隨伴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産業構造의 一般的인 變動要因과 構造推移行態面에서 그것의 特徵을 살펴 보겠다.

經濟成長은 産業構造의 變化의 因果傾向으로 集約될 수 있어서 한 나라의 經濟成長의 tempo는 産業構造變化의 柔軟性和 密接한 關聯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經濟成長의 크기를 決定하는 産業構造는 어떠한 要因에 의하여 決定되는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다음 表는 産業聯關表를 아주 單純化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한 나라의 産業構造를 規定하는 要因을 나누어 생각하면 ① 産業別總需要의 構成( $W_i + Y_i$ ) ② 總產出額의 業種別構成( $X_i$ ) ③ 最終需要의 項目別構成( $C_i + I_i + E_i = Y_i$ ) ④ 中間財販賣의 業種別構成( $W_i$ ) ⑤ 中間財購入의 構成( $U_i$ ) ⑥ 輸入의 構成( $M_i$ ) ⑦ 附加價値의 構成( $V_i$ ) 등의 諸側面에서 나타난 指標를 通하여 産業構造의 特徵的 變化推移를 考察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産業構造分析의 諸側面을 다시 綜合하여 大別해 보면 (A) 最終需要(消費, 投資 輸出)의 構成體系 (B) 生産要素類(資本, 勞動, 自然資源)의 賦存 및 配分狀態 (C) 技術體系(投

2)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1940.

3) W. G. Hoffmann: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cs, Manchester Univ. Press,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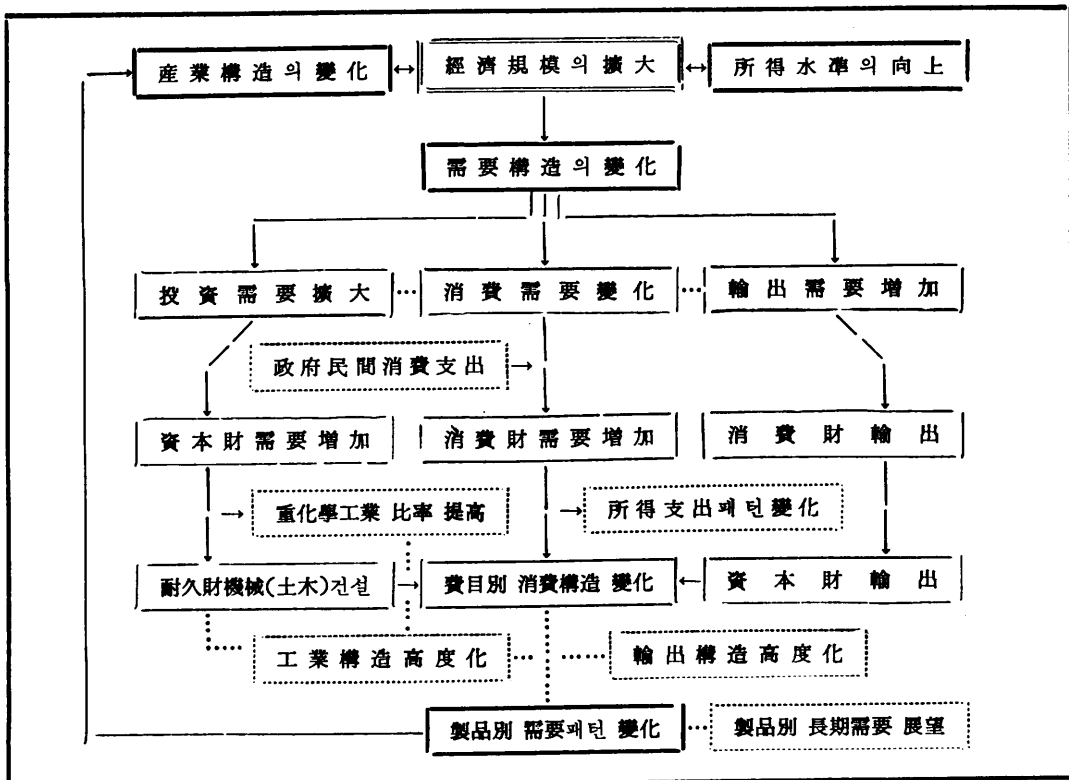
4) H. B.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0.

入係數, 輸入係數, 資本, 勞動係數, 附加價值率)의 3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產業聯關表의 基本模型

業 種 別	中 間 財 販 賣			最 終 需 要				輸 入 (3)	總 產 出 額 ①+②-③	
	1	2...n	合計 (1)	消 費	投 資	輸 出	計 (2)			
中 間 財 販 賣	1	$X_{11}$	$X_{12} \dots X_{1n}$	$W_1$	$C_1$	$I_1$	$E_1$	$Y_1$	$M_1$	$X_1$
	2	$X_{21}$	$X_{22} \dots X_{2n}$	$W_2$	$C_2$	$I_2$	$E_2$	$Y_2$	$M_2$	$X_2$
	...	...	...	...	...	...	...	...	...	...
	n	$X_{n1}$	$X_{n2} \dots X_{nn}$	$W_n$	$C_n$	$I_n$	$E_n$	$Y_n$	$M_n$	$X_n$
合 計 (4)		$U_1$	$U_2 \dots U_n$							
附加價值 (5)		$V_1$	$V_2 \dots V_n$							$V$
總產出額④+⑤		$X_1$	$X_2 \dots X_n$		$C$	$I$	$E$	$Y$	$M$	

產業構造의 變化過程圖



#### 4 는 문 집

産業構造變化過程圖<sup>5)</sup>에서 最終需要体系의 變化가 産業構造의 變化를 일으키는 過程을 생각해 본다.

最終 需要体系는 消費需要와 投資需要 그리고 輸出需要로 區分되는 바 이러한 需要構造의 變化는 政府民間의 消費需要增加를 出發點으로 하여 絶對的인 消費需要規模의 增加와 所得支出「패턴」의 相異에 따른 費目別 消費構造의 相對的인 變化를 가져 오고 이는 다시 製品別 需要「패턴」을 다르게 한다. 한편 이러한 消費需要變化는 消費財供給을 充足시켜 주는 消費財生産部門의 規模擴大와 이를 뒷받침하는 中間原資財供給源의 擴大를 後續시킴으로써 投資需要의 擴大를 誘發시키게 된다. 이러한 需要構造의 變化体系 위에서 生成된 生産基盤의 擴充은 輸出(消費財 또는 資本財)을 刺戟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消費需要의 變化는 投資需要의 變化를 誘發시키고 이 兩者가 다시 輸出需要를 波及시켜 가는 一連의 過程은 經濟規模의 擴大와 經濟規模内部의 産業構造의 變化를 나타내게 된다

即 最終需要를 構成하는 消費·投資·輸出이라는 三大体系가 갖는 相對的 構成比率에 따라 消費財中心의 産業構造類型이나 投資財中心의 産業構造類型으로 決定되고 더 具體的으로는 所得의 支出「패턴」에 따라 나타나는 費目別 消費構造의 變化나 製品別 需要「패턴」의 變化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資本財需要構造의 變化 그리고 輸出構造의 高度化段階에 따른 需要構造의 變化는 終局的으로는 産業別 生産構造의 變化에로 歸結됨으로서 産業構造의 類型을 決定짓는 主要 要因으로 되고 있다. 産業構造의 變化를 일으키는 要因으로서 以上에서 본 最終需要体系의 變化 以外에도 生産要素의 賦存 및 配分狀態와 技術体系의 變化의 影響度에 따라 産業構造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以上과 같은 産業構造의 決定要因의 分析을 통해서 볼 때 産業構造의 變化는 經濟成長의 內容과 速度를 決定짓는 構造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一定한 「패턴」을 가진 産業構造는 一定한 經濟成長水準에 對應하는 函數關係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체너리(H. B. Chenery)는 現在의 成長實績이나 未來의 成長展望에 영향을 미치는 産業構造의 特徵的 變化를 <表Ⅱ-1>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위표를 中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變化의 特性을 살펴 보겠다.

첫째 産業構造의 變動을 가져 오는 産業別 成長率의 推移<表Ⅱ-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第1次産業成長率에 比하여 2次産業과 3次産業部門의 成長率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은 2次産業과 3次産業部門이 總體經濟成長에 대한 寄與率이 그만큼 컸다는 事實을 뜻하는 同時에 이들部門이 總體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또한 급속히 增大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産業別 構成비에 있어서도 비교적 急速히 變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우리 나라의 1人當 GNP가 1976年の 700\$ 水準에서 産業別構成을 國際水準(表Ⅱ-1참조)과 比較하여 보면 몇가지 特性을 들 수 있다. 즉, 1次産業의 構成比率(24.8%)은 VI(600\$)群에 屬하고 있으며 2次産業의 構成비

5) 白永勳, 韓國의 工業化發展論. 1971. p. 45.

〈表Ⅰ-1〉 1人當 GNP 類型別 産業構造「패턴」 (1964年價格) (單位: %)

部門別	GNP水準(\$)									
		I 50	II 100	III 200	IV 300	V 400	VI 600	VII 800	VIII 1,000	IX 2,000
<b>I 産業構造</b>										
① 1次産業比率		58.1	46.4	36.0	30.4	26.7	21.8	18.6	16.3	9.8
② 2次産業比率		7.3	13.5	19.6	23.1	25.5	29.0	31.4	33.2	38.9
③ 3次産業比率		34.6	40.1	44.4	46.5	47.8	49.2	50.0	50.5	51.3
<b>II 産業別就業構造</b>										
① 1次産業比率		75.3	68.1	58.7	49.9	43.6	34.8	28.6	23.7	8.3
② 2次産業比率		4.1	9.6	16.6	20.5	23.4	27.6	30.7	33.2	40.1
③ 3次産業比率		20.6	22.3	24.7	29.6	33.0	37.6	40.7	43.1	51.6
<b>III 貿易構造</b>										
① 輸出依存度		9.9	13.2	16.3	18.0	19.1	20.7	21.8	22.5	24.8
② 輸入依存度		16.6	18.7	20.6	21.6	22.3	23.2	23.8	24.3	25.5

註 ① 50, 100, 1,000 \$ 水準의 構成比는 100%에 대한 修正比率임  
 ② 위의 比率은 1950~1965年間 100個國을 抽出하여 多元回歸分析으로 計算한 數值인데 1960年 現在 人口 1,000萬名 以上の 國家임. 特別 이 資料는 1968年 12月 國際開發復興銀行이 發刊한 "World Table"의 資料이며 보다 詳細한 資料는 Chenery, Elkington, Sims의 "A uniform Analysis of Development Patterns, (1970)을 참조할것

〈表Ⅱ-2〉 韓國의 産業構造「패턴」

部門別	年度別								
		1962~66	1967~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2~76
<b>I 産業別成長率</b>									
① 1次産業		5.3	2.8	1.7	3.6	5.8	7.1	8.9	5.42
② 2次産業		14.2	20.3	15.0	30.4	17.0	12.9	25.4	20.4
③ 3次産業		8.9	12.3	5.8	14.7	4.9	5.8	11.3	9.3
<b>II 産業構造</b>									
① 1次産業		39.7	29.1	28.3	25.6	25.0	25.4	24.8	25.8
② 2次産業		18.1	21.9	24.4	27.3	29.1	29.7	31.0	28.3
③ 3次産業		42.2	49.0	47.3	47.1	45.9	44.9	44.2	45.9
<b>III 産業別就業構造</b>									
① 1次産業		60.4	51.5	50.6	50.0	48.2	45.9	44.6	47.8
② 2次産業		9.6	14.0	14.2	16.3	17.8	19.1	21.9	17.6
③ 3次産業		30.0	34.5	35.2	33.7	34.0	35.0	33.5	34.3
<b>IV 貿易構造</b>									
① 輸出依存度		8.0	16.0	22.6	33.3	32.1	31.4	30.8	30.4
② 輸入依存度		16.7	26.3	28.2	37.3	45.6	42.6	35.0	37.7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5」 및 「76國民總生産實績推計」  
 註 70年 不變市場價格기준

(31.0%)는 VII(800\$)群, 3次産業構成比(44.2%)는 III(200\$)群에 各各 속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産業構造의 特性을 살펴볼 때 特히 2次産業을 中心으로 한 産業構造面에서는 VII(800\$)群 나라들과 비슷한 産業構造를 갖추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는 外型上 經濟成長의 段階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經濟開發計劃의 工業化政策으로 因하여 勞動力供給과 技術水準이 2次産業의 成長에 크게 寄與한 탓이다.

둘째 産業別就業構造面에서도 産業構造高度化의 추세를 볼 수 있다. 이것은 1次産業의 停滯性과 2次産業의 急速한 成長結果인 것이다. 이러한 就業者의 變動率이 크게 나타난 것은 生産性向上率의 높은 産業에 資源配分이 集中化 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되며 이는 「C. Clark」<sup>6)</sup>나 「S. Kuznets」<sup>7)</sup>에 의한 그 實證的法則에서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經濟의 高度成長은 이와 같은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部門에 많은 勞動力이 配分되고 生産性이 낮은 1次産業에 勞動力의 減少를 가져 왔다.

勞動力産業別構成比는 <表II-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次産業의 勞動力構成의 점차적인 低下가 2次産業 및 3次産業의 勞動力構成의 增大로 나타나고 있지만 2次産業보다 3次産業의 構成比가 크게 增大하고 있다. 勞動力의 成長率은 2次産業이 높은 데도 構成比의 幅은 3次産業이 대단히 높게 보이고 있다. 이는 1次産業의 比重低下가 컸음에도 不拘하고 2次産業이 이를 모두 吸收할 수 없고 결국 第3次産業의 比重增大로 나타난 것이다. 就業者의 産業別構成을 <表II-1>에서 國際比較하면 1次産業의 構成比(44.6%)는 V(400\$)群, 2次産業의 構成比(21.9%)는 IV(300\$)내지 V(400\$)群, 3次産業의 그것 (33.5%)은 V(400\$)群에 各各 해당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産業別生産額構成比와 비교하면 1次産業의 勞動力構成比는 産業別 構成比보다 相對적으로 낮은 所得水準의 나라와 같은 段階에 있고 바꾸어 말하면 1次産業의 生産額構成比는 勞動力構成보다 相對적으로 높은 所得水準의 나라와 같은 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次産業의 勞動生産性이 最近에 와서 다소 높아지고 있는 면을 보이고 있다. 한편 2次産業의 勞動力構成比는 生産額의 構成比보다도 相對적으로 낮은 所得段階에 있고 反面에 生産額構成比가 勞動力構成比보다 相對적으로 앞선 所得段階에 있다. 이는 2次産業의 生産性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工業構造面에서 特히 産業構造高度化의 行態를 볼 수 있다.

지난 急速한 經濟成長은 産業構造高度化와 工業化의 進展을 보여 주었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工業部門은 成長하여 왔지만 部門間에 있어서는 不均衡的인 成長을 초래 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工業生産의 所得彈性值로서 그것의 實證을 들 수 있다.<sup>8)</sup> 工業生産의 所得彈力性은 모두 1보

6)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2nd, 1951.

7) S. Kuznets: Industrial Distribution of National product and Labor,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V. No.4, July. 1957. p.10.

8) 韓國銀行: 韓國産業構造의 再編成, 1971, p. 31.

다 크며 그중에서도 基礎金屬은 4.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化學으로 3.82, 金屬製品 3.31, 섬유 2.17, 食飲料品, 煙草가 1.79 其他 製造業이 1.87로 밝혀지고 있는바 大體로 化學工業 金屬製品 基礎金屬 등의 製造業은 製造業附加價值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向上되었지만 섬유, 食飲料品 煙草, 其他製造工業 등의 比重은 低下하였다.

全製造業을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으로 나눈다면 輕工業生産의 所得彈力性은 1.95이고 重化學工業의 그것은 3.64로 나타나며 製造工業全體로는 2.35를 示顯하므로써 工業構造高度化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이러한 事實은「A. Maizel」와 「UN」의 工業成長의 研究에서 主要工業品需要의 所得彈力性<sup>9)</sup>(UN:1.369 및 Maizels:1.40~2.0)보다도 크다는 뜻에서 우리 나라 工業構造高度化가 그만큼 빠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工業構造高度化의 行態變化는 消費財工業과 資本財工業의 比重에 의하여 工業化段階로 區分하고 있는 호프만比 (Hoffmann Ratio)<sup>10)</sup>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工業化過程을 測定한 <表 II-4>에서 보면 60年代初까지의 「호프만比率」은 4.2인 1段階에서 62~66년에는 2.8~2.0인 工業化 2段階를 거쳐 71~76년에는 工業化 3段階까지 發展한 것이다.

<表 II-3> 「호프만比」에 의한 工業化段階

工業化段階	호프만比率
1段階	5(±1)
2段階	2.5(±1)
3段階	1(±0.5)
4段階	1以下

註: 호프만比率 =  $\frac{\text{消費財工業}}{\text{資本財工業}}$

<表 II-4> 韓國의 호프만比推移 (單位: %)

年 度	經 工 業	重 化 學 工 業	호프만比	段 階
1960	77.7	22.3	4.2	第1段階
1962	66.8	33.2	2.8	第2段階
1966	68.1	31.9	2.0	
1971	62.2	37.8	1.7	第3段階
1976	59.8	40.2	1.5	

資料: ① 國民所得年報에 의거 作成  
② 1970年 不變市場價格기준

9) UN: A Study of Industrial Growth, 1963.  
A. Maizels: Growth and Trade, 1970.  
10) W. G. Hoffmann: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cs, 1958. 特히 第3章과 4章참조

<表 II-5> 各國의 호프만 係數

年度別 國別	1840	1860	1880	1900	1920	1940	1962
美 國	2.4	—	1.8 1.5	1.2 0.9	0.8	0.7	0.7
英 國	4.7	3.9	1.7	1.8	1.5	1.1	0.7
獨 逸	—	—	2.3	1.5	1.1	0.7	—
日 本	—	—	4.8	2.5	1.5	0.7	—

資料: 大韓商議; 産業合理化運動本部, 産業發展과 技術革新 1973. P.88

특히 1970年代에 이르러 工業化의 第3段階에 도달하고 있으며 2段階에서 3段階로 移行하는 기간이 불과 6~7年으로 短縮되고 있다. 그러나 先進工業國과 비교해 보면 <表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이 1900年代에, 英國이 1920年代에, 獨逸이 1920年代에, 그리고 日本이 1930年代에 이미 第3段階에 到達하였음을 볼 때 우리 나라는 현격한 工業化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工業構造의 變化는 工業化率 및 重化學工業化率이라는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表 II-4)에서 1960年의 重化學工業比率은 22.3%였으나 1976년에는 40.2%로 約 2倍로 向上되어 消費財工業 또는 輕工業中心의 産業構造가 점차 資本財 또는 重化學工業에의 길로 進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重化學工業化率은 아직도 先進工業國의 60~70%에 比하면 크게 뒤지는 水準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의 變動要因을 生産額構造 및 成長率, 勞動力構造, 工業構造面에서 國際水準과 비교하므로써 우리 나라가 그 동안 變化하여온 産業構造行態의 特性을 알 수 있다.

II-2: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育成할 必要가 있는 産業에 대하여 國際競爭力이 強化될 때까지 保護한다든가 補助金 등을 交付하여 競爭力을 賦與하는 政策이 必要하게 된다.

여기에서 幼稚産業保護論을 簡單히 紹介하여 두하고자 한다.

幼稚産業을 保護育成 하는 것은 經濟發展에 대하여 매우 重要한 意味가 있다. 그러나 保護政策의 結果로서 資源 및 所得의 再分效果 卽 外國의 競爭企業에 대하여 國內企業을 保護하고 同時에 國內의 다른 産業에 대하여 當該産業을 保護한다는 側面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幼稚産業은 現在에 있어서는 技術과 市場의 制約으로 國際 競爭力이 없더라도 一定期間 保護하면 將來에 있어서는 生産性이 國際의 水準까지 向上될 수 있어야 한다(J.S.Mill의 基準). 다음에 現在 이 産業을 保護하는데 必要한 社會的 費用이 將來의 利益에 合當하는 것이어야 한다(바스테인의 基準). 또 幼稚産業에 대한 投資라 하더라도 이른바 하나의 長期的인 投資이며 將來의 發展이 確實하다면 自然的으로 資本이 流入할 것이므로 幼稚産業의 保護는 個個의 企業으로서 現在의 損失을 將來의 利益으로 充當할 수 없는 경우에만 正當化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캠프



의 基準).<sup>11)</sup> 以上을 要約하면 幼稚産業保護論은 將來에 있어서의 發展可能性이 있고 더우기 社會的으로는 收支採算이 맞는데도 私企業「베이스」로는 그렇지가 못하는 産業에 대해서만 認定되는 것이다. 「캡프」의 基準에 대하여 생각하면 이렇다면 巨額의 先行投資를 하여 開發한 技術이 바로 다른 企業에 의하여 模倣되고 혹은 養成된 技能工이 다른 企業으로 빠져 나간다면 生産性向上의 成果는 競爭에 의하여 價格의 下落을 가져와 결국 企業利潤으로 實現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開發의 損失을 創業者만이 負擔하는 것은 不合理하므로 그 어떤 保護를 할 必要가 있다.

<圖Ⅱ-1>에서 DD를 需要曲線, SS'를 國內産業의 供給曲線, EE'를 外國의 輸入曲線이라고 하면 國內産業이 없는 경우의 價格이  $OC_1$ 이면 國內消費量은  $C_1e$ 에서 決定되며 이때 供給은  $C_1e$ 와 同一한 輸入 $dc_1$ 에 의하여 모두 充當되다.

幼稚産業은 現在 國際 競爭力이 없으므로 供給曲線SS'는  $C_1$ 보다도 上位에 있으며 價格  $OC_1$ 에서는 全然 供給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다. 여기에서 幼稚産業에 一定한 保護를 주어 OM만큼의 生産量을 確保하였다면 價格은  $OC_2$ 로 低下하고 이 때의 國內 生産量은  $C_2g(=OM)$ , 輸入은  $gh$ 와 같은  $fc_2$ 가 된다. 이와 같은 保護를 한 結果로서 幼稚産業에 있어서 産業의 國際 競爭力이 強化되어 供給曲線이  $S_2S_2'$ 까지 下方으로 移動하였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價格은  $OC_3$ , 國內 供給量  $C_3j$ , 輸入은  $iC_3(=jk)$ 가 된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産業이 幼稚한 段階에 있을 때에는 그 供給曲線 SS'는 國內産業이 없는 경우의 價格水準  $OC_1$ 보다도 上位에 位置하고 있다. 또 J. S. Mill의 基準이 要求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一定한 期間保護를 한 結果로서의 供給曲線  $S_2S_2'$ 는 그 一部分 國內産業이 없는 경우의 價格水準  $OC_1$ 보다도 下方으로 移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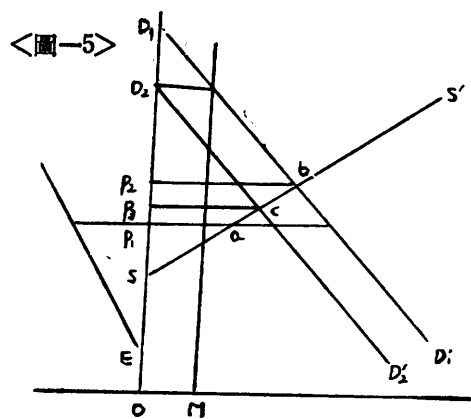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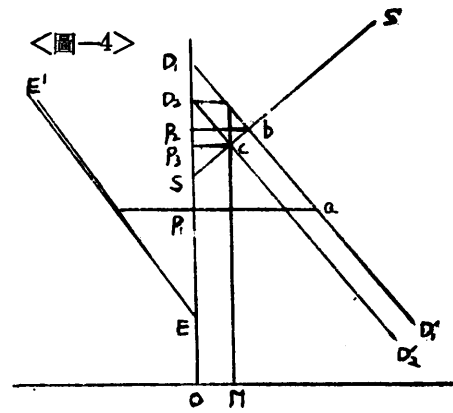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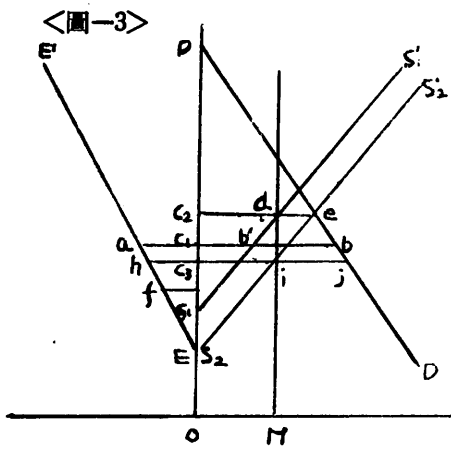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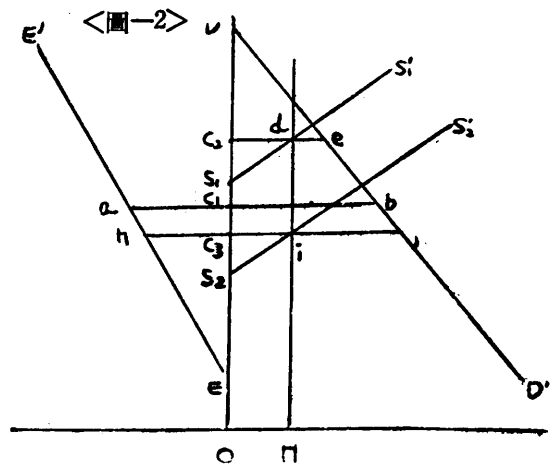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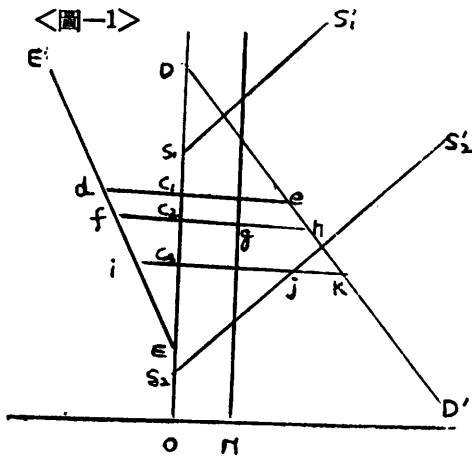
그리고 將來 이같은 供給曲線의 下方移動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는 現在 必要한 生産量의 下限을 생각할 수 있다. 이 生産은 當該企業에 대하여 一定量의 損失을 주게 되지만 그것은 將來의 生産量과는 無關係한 一種의 固定費가 되는 것이다. 이 固定費가 幼稚産業의 育成過程에 있어서 固有的 費用이며 이點에서 社會的으로 보면 育成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私企業「베이스」로는 投資가 이루어 지지 않은 産業을 保護할 根據가 된다.

다음에 이와 같은 幼稚産業을 保護하는 手段에는 保護關係, 補助金, 輸入制限 등이 있는 바 먼저 保護關稅와 補助金의 效果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겠다.

全然 國際 競爭力이 없는 幼稚産業을 保護하는 경우를 <圖Ⅱ-2>에서 保護를 한 結果 어느 程度의 國際 競爭力을 갖추게 된 産業에 대하여 다시 保護를 계속하는 경우를 <圖Ⅱ-3>에 表示하여 보았다.

保護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價格은  $OC_1$ 에 決定되며 國內 消費量은  $C_1b$ , 國內生産量은 <圖Ⅱ-2>에서는 0, <圖Ⅱ-3>에서는  $C_1b'$ , 輸入量은  $aC_1$  (이것은 <圖Ⅱ-2>에서는  $C_1b$ 에, <圖Ⅱ-3>에서는  $b'b$ 와 同一하다)이 된다.

11) 大韓商議: 韓國經濟研究센터, 産業体制의 現況과 課題 1971, p. 66



다음에 輸入製品에 대하여  $gc_2$ 만큼 保護關稅가 賦課되었다고 하면 價格은  $OC_2$ 로 上昇하고 國內 消費量은  $C_2e$ 로 減少하지만 國內生産量은  $C_2d$ 로 增加하여 關稅에 의하여 國內 産業이 保護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同一한 効果는 當該 産業에 補助金を 交付하여도 이룩될 수 있다. 卽 補助金の 交付로 供給曲線이  $SS_1$ 에서  $S_2S_2'$ 로 下方移動하면 國內에 있어서는  $C_2d$  卽 保護關稅를 設定한 경우의 生産量과 같은  $C_3i$ 의 生産重이 確保되어 所期의 目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때의 輸入量은  $hC_3(=ij)$ 가 된다.

다음에 輸入制限의 保護效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全然 國際 競爭力이 없는 幼稚産業을 保護하는 경우를 <圖 II-4>에, 保護를 한 結果 어느 정도 國際 競爭力을 갖게 될 産業을 다시 保護하는 경우를 <圖 II-5>로 나타내었다.

輸入이 完全히 自由化 되어 있는 경우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圖 II-4>에 있어서는 國內 生産量  $O$ , 價格  $P_1$ 이 되고 <圖 II-5>에 있어서는 各各  $P_1a, P_1$ 이 된다. 이에 대하여 輸入을 全然 認定하지 않는 경우에는 國內需要曲線  $D_1D_1'$ 와 國內 供給曲線  $SS'$ 와의 交點  $b$ 에서 需給이 均衡을 이루게 되므로 國內 生産量은  $P_2b$ , 價格은  $P_2$ 로 決定된다. 또한 세번째 경우로서  $OM$ 만큼의 輸入을 認定하였을 때에는 國內市場에 대하여는 國內 需要曲線  $D_1D_1'$ 가  $OM$ 만큼 左方으로 移動하고  $D_2D_2'$ 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需給은  $SS'$ 와  $D_2D_2'$ 의 交點  $C$ 에서 均衡을 이루며 國內 生産量은  $P_3C$ , 價格은  $P_3$ 에 決定된다.

따라서 第2의 경우와 第3의 경우에는 輸入自由化의 경우에 比하여 國內 生産量은  $O$ 에서  $P_2b$  또는  $P_3C$ 에 (<圖 II-5>에서는  $P_1a$ 에서  $P_2b$ 로) 各各 增加한다. (保護關稅), 그러나 이와 反對로 價格은  $P_1$ 에서  $P_2, P_3$ 로 各各 上昇하게 될 것이다<sup>12)</sup>

幼稚産業의 保護育成은 産業構造高度化를 推進하기 위한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바 이 政策理論은 一定한 經濟發展段階에만 妥當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經濟發展段階에서 妥當한 것이다. 다만 經濟發展段階에 따라서 具體的인 幼稚産業의 種類가 다르고 그것에 適合한 保護育成政策을 採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經濟成長과 産業構造의 變動과의 關係에서 最適成長을 위한 最適産業構造를 實現하는 데는 自國의 主導産業을 國際水準에 도달할 때까지 一定한 期間 동안 保護育成하는 政策의 努力이 더욱 必要한 것이다. 幼稚産業은 一般的으로 ① 規模利益이 크고 當初부터 상당한 巨大設備 投資가 必要하다. ② 生産技術이 높고 技術進步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이들 産業을 健全하고도 急速하게 國際水準으로 育成하려면 첫째로 一定需要規模의 確保措置가 必要한 뿐만 아니라 生産開始 후에는 償却負擔이 크므로 投資效率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높은 操業度를 維持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幼稚産業의 新規製品은 長期的으로 보면 需要의 大幅的인 擴大를 期待할 수 있어도 短期的으로는 반드시 充分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企業化에는 커다란 「리스

12) 大韓商議: 韓國經濟研究센터, 前掲書 pp. 67~72

크]가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企業에 대하여 適正生産規模의 投資를 시키고 그 投資效率을 提高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하는 것이 政策的으로 要請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企業化計劃을 調整하고 企業의 亂立을 防止하여야 한다.

또 外國製品과의 競爭에서 保護하는 데는 輸入割當制 또는 保護關稅制度에 의하여 保護하는 方法과 輸入은 自由化하고 補助金 등의 優待措置로 國內製品價格을 國際水準으로 接近시키는 方法이 있으나 이것은 業種에 따라서 一定하지 않다. 다만 規模의 利益이 크고 製品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높은 産業에 대하여는 後者의 方法이 理論적으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競爭刺戟이라는 自由競爭의 Merit도 도움이 되어 보다 急速하게 國內産業을 國際水準으로 接近시킬 수 있게 한다는 利益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幼稚産業에 대한 投資는 資本의 限界效率이 相對的으로 나쁜 部門에 대한 投資이며 더우기 巨額의 資金이 必要하므로 補助金の 交付라든가 投入이라든가 Merit를 주는 것이 必要하다. 셋째로 新技術의 開發 내지 開發된 技術導入이 積極的으로 作用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하는 것이 必要하다.

Ⅱ-3: 産業構造高度化 및 再編成過程의 基本類型과 段階를 「호프만」(W. G. Hoffmann)의 工業化 段階와 「체너리」(H. B. Chenery)의 工業成長類型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 1) W. G. Hoffmann法則과 工業化段階:

經濟成長을 主導해 가는 産業構造高度化를 특히 工業內部構造의 變化에 力點을 두고 工業化段階를 規定하고 世界各國의 工業化過程을 比較하여 工業內部構造의 共通的인 發展類型을 定立하여 한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을 産業構造高度化 내지 再編成에서 찾아 보자고 最初의 實證的인 統計的 計測을 시도한 研究가 「호프만」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sup>13)</sup>

호프만(W. G. Hoffmann)은 近代의 工業化過程에서는 一般的으로 消費財工業이 主導的인 位置를 占하고 있지만 資本財工業의 持續的인 成長으로 말미암아 資本財工業의 純生産額에 대한 比率提高에 比하여 消費財工業의 純生産額의 比率이 連續的으로 低下한다고 하였다. 즉 經濟成長經路에 따라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호프만比率」은 連續的인 低下傾向을 나타냄으로써 結局 消費財工業의 比重은 계속 減少하고 投資財工業의 比重은 相對的인 增大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프만 法則」이란 總量的인 經濟成長過程에서 나타나는 消費財工業部門의 比重低下와 投資財工業部門의 比重增加를 一般的인 傾向으로 把握하고 이러한 工業內部構造의 質的 變化를 「호프만 比率」의 漸次的인 低下로 體系化함으로써 「호프만 比率」을 工業化 發展段階의 相對的인 指標로 삼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호프만」은 위와 같이 一般的인 傾向法則을 토대로 하여 工業化의 發展過程을 <表Ⅱ-3>과 같이 4段階로 區分하였다.

13) W. G. Hoffmann: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cs, 1958.

第1段階는 消費財工業의 純生産額이 資本財工業의 5倍(또는 4~6倍)로서 消費財工業 (83%)이 資本財工業(17%)에 대하여 絶對적으로 높은 構成比를 나타내는 段階이며 第2段階는 消費財工業의 純生産額이 資本財工業의 2.5倍 (또는 1.5倍~3.5倍)의 水準으로 낮아져서 消費財工業과 資本財工業生産額의 構成比는 71% 對 29%의 類型的 比率을 보이는 段階이다.

第3段階는 資本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이 1對 1로써 兩部門의 純生産額이 거의 均等化하는 段階이다. 더 正確히 말하면 第3段階에서 全工業生産額中 消費財工業의 比重은 60%~30%의 範圍内에서 變化하고 資本財工業은 40%~70%内에서 變化한다는 것이며 이를 平均해 보면 50%라는 一般的인 第3段階 類型比率을 推算할 수 있다. 第4段階는 急激하게 成長하는 資本財工業에 比하여 消費財工業의 相對的 構成比重이 계속 낮아지는 段階이다.

2) H. B. Chenery 類型과 成長函數; 14)

工業生産規模의 擴大는 工業化 發展過程의 進展을 把握할 수 있게 하는 主要指標로 되고 있음은 이미 說明한 바와 같거나 絶對的 工業生産 規模뿐만 아니라 工業生産 内部構造 自體에 어떠한 相對的인 變化를 隨伴하고 있느냐 하는 點에 着眼하여 工業化「패턴」을 設定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체너리」의 「成長函數」導出에 의한 工業成長 類型이다.

工業化과정은 經濟成長의 變化를 가져 온다고 說明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變化內容을 隨伴한다고 하였다.

즉 ① 全産業에서 占하는 製造工業構成比의 相對的 增加 ② 製造工業 内部構造의 變化 ③ 生産技術의 高度化와 生産供給源의 擴大 등이다. 特히 製造工業比重이 他部門에 比한 相對的 擴大를 일으키는 要因을 다음의 3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즉 ① 國內 生産增大에 의한 輸入代替의 實現 ② 工業製品에 대한 最終需要의 增大 ③ ①과 ②의 結果로 나타나는 中間財需要의 增大 등이 그것이다.

「체너리」는 工業化要因을 供給側要因 (國內 生産增大에 의한 輸入代替)과 需要側要因 (工產品의 最終需要 또는 中間財需要)으로 區分하고 輸入代替에 의한 國內生産 增大 要因이 工業化의 50%를 占하고 中間財需要 增大要因이 28%, 最終需要 增大要因이 22%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表Ⅱ-6>참조

<表Ⅱ-6> 工業化 促進要因의 寄與度

業種別	工業化要因	輸 入 代 替	最 終 需 要	中 間 需 要
投 資 關 聯 財		72%	11%	17%
中 間 生 産 財		66	7	27
消 費 財		13	45	42
全 産 業		50%	22%	28%

資料: H. B.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1960. p. 638

14) H. B.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이와 같이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의 製造業의 보다 急速한 相對的 擴大는 絕對的인 工產品 需要規模의 增大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오히려 中間財投入比率의 增大을 통한 國內生産 技術의 高度化 (工業生産構造의 高度化)라는 供給效果가 뒷받침된 輸入代替가 보다 더 重要한 作用을 加한다고 할 수 있다.

「체너리」는 이와 같은 研究結果를 통하여 需要構成의 變化(需要側要因)가 供給效果를 수반함으로써 國內生産을 增大시키고 輸入을 代替시키는 過程에서 産業構造가 高度化 내지 再編成된다는 特徵을 엿볼 수 있다. 「체너리」는 時系列分析 및 橫斷分析 (Cross-Section)을 통하여 各 産業部門의 生産水準 (各 産業別 附加價值 水準)은 所得水準과 人口規模의 函數라는 前提下에 다음과 같은 對數線型函數(Linear Logarithmic Regression Equation)을 設定하였다.

$$\log V_i = \log \beta_{i0} + \beta_{i1} \log Y + \beta_{i2} \log N$$

여기에서  $V_i$ : 各 産業의 1人當 附加價值

$Y$ : 1人當 國民所得

$N$ : 人口規模

$\beta_{i0}$ :  $Y = \$ 100$ ,  $N = 10$ 百萬일 때의  $V_i$ 의 값.

$\beta_{i1}$ :  $(\frac{dV_i}{V_i} / \frac{dY}{Y}) = 1$ 人當 所得彈性值

$\beta_{i2}$ :  $(\frac{dV_i}{V_i} / \frac{dN}{N}) = 規$ 模彈性值

所得彈性值는 1人當 所得成長에 따른 各 産業의 成長을 말해 주며 規模彈性值는 그 크기가 大規模生産의 利益을 통해 어떻게 經濟成長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체너리」는 위와 같은 對數線型 函數模型을 適用하여 各 業種別 成長係數와 規模係數를 計測하고 業種別 回歸方程式을 利用하여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른 工業內部構造變化의 「패턴」을 <表 II-7>과 같이 提示하고있다.

<表 II-7>

成長段階와 重化學工業의 比重

部門別	1人當所得	100 \$	300 \$	600 \$
投 資	財	12.0%	23.6%	34.5%
中 間	財	19.7	22.3	22.6
消 費	財	68.3	54.0	42.9

資料 : H. B. Chenery, "Patterns....."

100\$의 國民所得水準에서 製造業의 68.3% (附加價值基準)가 消費財産業이며 中間財産業은 19.7%, 投資財産業은 12.0%에 不過하다. 그러나 跳躍段階에서 中進工業國에의 接近을 可能케 하는 것으로 보이는 300\$의 國民所得水準에서 消費者財産業部門의 比重은 製造業全體의 過半을 若干 넘는 54.0%이며 中間財部門은 100\$水準의 19.7에서 22.3%線으로 上昇하는 程度의 微少한 增大를 보이고 있으나 投資財部門은 12.0%에서 23.6%로 顯著한 增加로 나타나고 있는 點이 特徵으로 指摘될 수 있다. 한편 成熟經濟에의 進入을 區劃하는 線이라 할 수 있는 國民所得 600\$水準에서는 投資財産業의 比重은 34.5%로 上昇하고 反面에 消費者財産業의 比重은 42.9%로 下落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中間財産業은 一定한水準의 比重을 維持하고 있다.

## II

II-1 : 本章에서는 構造再編成의 局面 및 方向에 對해서 各節을 달리하여 提示하는데 우선 構造改編의 選定基準 및 條件을 살펴 보겠다.

産業構造高度化 내지 再編成은 「호프만」의 實證的 研究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本財産業의 比重增大로서 表現될 수 있다. 現實으로 自由價格機構의 機能에 限界가 있으며 또한 經濟成長과 産業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經濟秩序를 自由價格機構에 全的으로 맡길 수가 없다.

여기에서 經濟計劃의 重要性이 認識되며 産業構造의 決定基準은 이러한 産業政策的 觀念에서 고려되어지는 것이다. 特히 오늘날과 같이 經濟의 國際化가 擴大되고 先進工業國과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的 間隙이 심한 狀況下에서는 産業化를 위한 經濟計劃의 必要性이 더욱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産業構造의 高度化 課題를 政策的으로 誘導促進하기 위해서는 最適産業構造에 關한 比견과 이를 誘導하기 위한 算定基準의 檢討가 必要한 것이다.

算定基準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投資基準, 計量的 方法, 比較生産費基準, 長期動態의 觀點에 의한 基準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여기에서 投資基準은 最適産業構造를 策定하는 基準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이는 經濟全體의 成長을 통해 가능한 投資源泉이 要求되는 分野에 配分함으로써 産業構造의 改編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는 것이다.

計量的 方法은 그 基準으로서 輸入依存度, 雇傭係數, 資本係數를 算出하고 이를 LP (Linear programming)手法에 의하여 處理 함으로써 最適産業構造를 導出해 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輸入依存度, 雇傭係數 및 資本係數는 生産要素인 資源, 勞動 및 資本에 대한 係數으로써 이들의 最少의 投入과 最大의 産業發展(所得增加)이 計數적으로 算出되게 하는 方法이다.

15) 大越淵嘉入著: 「産業構造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64, pp. 75~86

比較生産費基準은 自由價格機構의 原理를 國際貿易의 面に 適用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自由價格機構의 作用結果로 實現된 産業構造가 最適産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적극적인 産業構造의 策定方法이 아니기 때문에 策定基準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貿易自由化의 理論的 背景은 이 原理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産業構造에 關한 하나의 重要的 見解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長期動態的 觀點에 의한 産業構造의 策定은 所得彈力性和 生産性上昇率이 그 基準이 된다. 이는 需要面에서 볼 때 所得增加에 따른 需要增加가 높은 産業 즉 所得彈力성이 높은 産業이나 供給面에서 볼 때 生産性上昇率이 높은 産業이 將來의 産業構造에서 優位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産業의 將來性を 判斷 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基準이다.

이렇듯 所得彈力성이 높고 生産性 向上率이 높은 産業이 全体産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增大하고 있는 過程과 現象이 곧 産業構造의 高度化인 것이고 이로써 經濟成長은 보다 效率的으로 促進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所得彈力性和 生産性向上率基準은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高度化 내지 再編成을 위한 主導産業의 形成을 促進하는 基準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最適産業構造의 策定은 어떤 點에 力點을 두느냐에 따라 그 基準이 달라지게 되나 産業構造 自体가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形成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諸基準 및 條件은 그 나라의 産業化政策에 따라 적절히 調和되어야 할 것이다.

### Ⅱ-2: 輸出主導型 産業構造의 高度化 ;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主軸産業의 形成에는 主軸産業에 대한 需要의 所得 彈力性和 比較 生産성이 높아야 하는데 主軸産業의 比較 生産성은 需要의 所得 彈力성이 「規模의 經濟性」를 可能케 할 만큼 充分히 클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外國貿易이 없는 경우에는 一定한 所得 水準 밑에서 需要變動이 크지 않으므로 國內需要의 變動을 通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 시키는데 처음부터 큰 制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外國貿易의 導入은 産業構造를 變化시킨다. 이 경우에 輸出需要가 클 때에는 國內所得 水準에 變化가 없다 하더라도 그 存立이 可能하게 된다.

그러나 輸出需要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際競爭的인 生産性的 實現이 前提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다시 輸出需要의 展望이 生産性的 向上을 期할 수 있는 「規模의 經濟」를 實現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現存 産業의 輸出增大는 容易하게 된다.

現存産業은 이러한 條件이 주어졌다는 前提下에서 最少限 必要한 크기의 所得 彈力性和 높은 生産성을 갖는 것이므로 輸出增大는 産業存立 條件을 더욱 有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

輸出增大를 既存産業의 擴張을 通해서 보더라도 新規産業의 建設을 통해 더욱 達成하여야 할 必要性은 輸出增大를 急速히 이룩해야 한다는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 것이며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期하기 위하여는 不可避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輸出産業은 産業構造의 變動을 가져 오는 主軸産業의 役割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



로 보는데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해 期待되고 있는 主軸産業은 重化學工業임으로 결국 輸出增大를 위한 主軸産業은 重化學工業分野에서 찾아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輸出的 急速한 增大를 위해 既存産業의 擴張에서 보다는 新規産業의 造出開發에서 더욱 打開 하려면 具體적으로 輸出産業 選定基準은 所得彈力性和 比較生産性 그리고 國際競爭力을 確保해 주는 보다 優位の 生産函數에의 移行에서 求해야 한다. 그러므로 各國의 商品貿易構造를 比較하여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比較優位에 있는 工業製品의 輸出을 積極적으로 促進하여야 한다.

따라서 輸出商品構造高度화와 産業構造 高度化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函數關係가 成立함을 알 수 있다<sup>16)</sup>

첫째 産業構造 高度화가 先行하여 輸出商品 構造의 高度化를 가져온다.

즉 工業製品 輸出의 工業生産彈力性 또는 重化學工業製品 輸出의 重化學工業 生産彈力性이 1보다 적은 상태인 경우이다. 勿論 이것도 工業化의 段階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工業化의 初期에는 産業構造 高度화가 주로 工業生産의 增大 또는 輕工業生産의 增大를 뜻하는 것이므로 工業製品 輸出(따라서 輕工業製品 輸出)의 工業生産(따라서 輕工業生産) 彈力性이 1보다 적은 狀態에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리고 工業化가 進展되고 工業構造가 高度化 되는 경우에는 重工業製品 輸出의 重工業 生産彈力性이 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工業化나 重化學工業化 또는 産業構造 高度화가 「內需指向的」인 것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輸入代替産業이 推進되고 있는 後進國의 工業化는 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産業構造의 高度化 또는 重化學 工業化의 成敗는 주로 內需의 크기와 增加速度如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둘째의 경우는 첫째와는 反對로 輸出增大가 國內工業 構造의 高度化를 促進하여 주는 경우이다. 이것은 工業製品 또는 重化學 工業의 發展을 誘導하는 것이므로 工業製品(또는 重化學 工業製品)輸出의 工業生産 彈力性이 1보다 크게 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産業構造 高度化 또는 重化學 工業化가 「輸出指向的」인 形態를 취하면서 이루어 지며 工業先進國의 産業構造 高度化가 이런 類型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産業構造 高度化나 重化學 工業化의 關鍵은 輸出增大에 있다고 하겠다, 세계 産業構造高度화와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가 平行하는 中位的인 경우다. 工業製品(또는 重化學 工業製品 輸出)의 工業生産 彈力性이 大体로 1의 近傍에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때의 産業構造 高度化의 努力은 輸出商品 構造高度化의 努力과 並行하여 追求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輸出産業 構造高度화와 産業構造 高度化와의 關係를 살펴 보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 高度化를 다음과 같은 局面으로 나누어 觀察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輸入代替産業建設로 工業化를 推進하던 開發初期에는 工業化 또는 産業構造 高度화가 「內需指向的」이었다.

16) 大韓商議: 産業合理化運動本部, 産業構造高度化의 政策課題, 1973, pp. 105~106

둘째 現在 工業製品의 輸出이 주로 輕工業製品이고 이것은 國內輕工業生産의 增加率을 앞질러 輸出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國內輕工業의 發展策은 輕工業製品의 輸出增大策에 달려 있고 輕工業製品의 輸出增大策은 工業化의 大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局面은 重化學工業의 建設이 아직도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지만 重化學工業에 關한 한 아직도 內需指向的이고 輸入代替의인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重化學 工業化의 努力은 內需의 크기와 增加에 關한 政策的 配感을 同時에 隨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重化學 工業製品 輸出을 높이고자 하는 長期計劃은 분명히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輸出指向的인 方向으로 轉換케 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볼 때 輸出産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政策的 課題는 곧 産業構造 高度化를 위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課題가 되는 것이다.

### Ⅱ-3: 資源節約型 産業構造高度化:

經濟의 高度成長과 工業構造의 重化學 工業化를 指向하면서 發展하여 온 韓國經濟는 資源危機와 世界的인 資源[Nationalism]이 대두되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의 産業化政策에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産業構造에서의 重化學 工業化 戰略에 대한 根本的인 反省을 必要로 하고 있다. 韓國의 産業化 政策面에서 볼 때 1962~1976年間的 15年 동안 세차례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通하여 産業發展에 多樣한 構造的 變化를 가져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産業은 아직도 大規模 經濟의 利益을 享有하지 못하고 있으며 外型的인 構造의 改善에 隨伴한 産業體制나 秩序 즉 産業의 聯關的 整備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技術과 資源面에서 供給 및 開發體制가 確立되지 못함으로써 産業構造의 內的 高度化를 實現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産業化 推進의 重要源泉이 되었던 資源의 需給이 世界的으로 惡化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이 앞으로 더욱 深化되어 갈 展望下에서 韓國經濟는 資源節約的 産業構造로의 轉換이 重要한 政策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는 이들 基本的 命題가 充足될 수 있는 方向으로 調和있게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産業化와 産業構造 改善과 關聯된 座標를 檢討해 본다. 첫째로 資源節約이라는 側面에서 育成이 바람직한 産業은 資源集約도가 낮고 技術 및 知識集約도가 높은 産業으로서 앞으로 需要가 增大하고 技術發展의 可能性이 큰 産業이다. 둘째로 輸出增大의 側面에서 볼 때 現在 國際比較優位의 見地에서 國際競爭力이 있고 또한 將來에 國際競爭力을 強化하여 持續的으로 輸出市場을 開拓確保할 수 있는 中樞的 輸出産業을 育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生産性向上과 所得彈力性的 提高 可能性이 크고 高度의 技術水準을 前提로 하는 部門과 原資財의 國産化가 가능하고 勞動集約도가 높아 外貨稼得에 있어 重要한 役割을 담당할 戰略的 輕工業部門 등이 包含된다. 세계로는 生産 및 産業成長의 側面에서 볼 때 各産業에

重要한 基礎原資財를 供給하는 産業을 育成하는 것이다. 네째로는 資源節約의 産業體制의 側面에서 볼 때 一貫의 産業體制 즉 原料로부터 完製品에 이르기 까지 一貫된 聯關産業의 整備가 時急히 要請되며 企業間的 系列化를 通하여 國民經濟的 浪費를 除去하고 資源利用의 效率化를 全産業的으로 體系化할 것이 要請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 政策은 資源節約의 輸出增大 및 高度成長이라는 統合概念으로 把握할 때, 이제까지의 石油化學 中心의 重化學工業化 政策을 止揚하여 資源節約의이고 産業의 前後方 聯關效果가 큰 機械工業中心으로 轉換하고 原料産業과 資本財 및 中間財産業 그리고 消費財産業을 一貫하는 강력한 産業體制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各節을 달리하여 産業構造 高度化의 方向 局面을 다루었다.

다음 章에서는 産業構造 再編成에 따른 諸課題를 考察하겠다.

#### Ⅳ

##### Ⅳ-1: 投資構造의 高度化:

工業化의 類型이 構造高度化의 方向으로 設定되어 질 때 이를 뒷받침해 가는 實質的인 바탕은 投資規模로 集約될 것이다. 産業構造 內容이 工業部門 그 中에서도 '특히 重化學 工業部門의 急速한 成長과 比重增大를 意味하는 것이라면 投資政策面에서도 특히 重化學 工業部門에 대한 投資의 增大를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허쉬만 (A. O. Hirshman)은 어떤 特定産業의 重點的 開發의 指標로서 産業의 前後方 聯關效果(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를 提示하면서 制限된 投資財源으로 最大의 工業擴散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投資順位 (Investment Criteria)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工業部門을 특히 그 中에서도 가장 總聯關 效果가 높은 이른바 戰略産業部門을 優先的으로 選擇開發해야 한다는 不均衡成長理論(Unbalanced growth theory)을 題起시키고 있다.<sup>17)</sup>

이러한 觀點에서 投資의 決定基準은 한 産業의 開發이 多數産業의 生産活動規模의 擴張을 誘發하는 強度가 큰 이른바 前後方 聯關效果의 總合點의 큰 母體産業(Master Industry)을 中心으로 投資의 優先順위가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各産業生産部門 中에서 前後方 聯關效果가 큰 産業部門부터 投資優先 順位를 決定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投資計劃은 그것이 産業構造 高度化 내지 重化學工業化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결국 總投資額의 工業部門 또는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配分率의 增大라는 形成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하자면 産業構造高度化는 生産面에서 GNP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工業生産의 比

17) A. Hirs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chap.6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ization] pp. 98~118, Yale univ. press, 1965

重增大이고 投資面에서는 總資本 스톡 (stock)가운데서 工業資本[stock]이 차지하는 比重的 增大 또는 總投資의 工業投資配分率의 增大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 高度化의 問題는 工業投資配分率의 增大問題가 된다. 一般的으로 産業構造高度化는 部門別 또는 産業別資本係數가 同一할 경우 投資配分率의 變動을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産業別 資本係數에 差異가 있다면 差異의 比率만큼 生産額增加分比重的 變動에 加重하여 投資配分率의 크기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初期의 國民總生産額을  $Y'$  工業生産所得을  $Y_M$ ,  $Y$ 의 成長率을  $g$ ,  $Y_M$ 의 成長率을  $g'$ 라고 하고  $Y$ 部門과  $Y_M$ 部門의 限界資本係數를 各各  $V$ 와  $V'$ 라고 한다면 産業構造 高度化는 初期의  $Y_M/Y$ 가  $n$ 期에  $Y_M(1+g')^n/Y(1+g)^n$ (但  $g' > g$ )으로써 表現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工業投資配分率은 初期의  $V' \triangle Y_M/V - \triangle Y$ 에서  $n$ 期에는  $V' \cdot Y_M [(1+g')^n - 1]/V \cdot Y [(1+g)^n - 1]$ 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때 工業部門의 成長率과 限界資本係數는 總體經濟의 그것보다 모두 높으므로 工業部門의 投資配分率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重化學工業 또는 輸出部門投資配分率을 決定하는 경우에도 같은 方法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工業部門 또는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投資配分率의 增大가 곧 産業構造高度化의 한 側面이 된다는 뜻에서 産業構造高度化의 推進은 工業部門의 投資配分率을 增大시키기 위해 工業部門의 成長率을 높힐 것은 물론 資本係數가 큰 部門에의 投資를 또한 增大시켜야 한다는 것은 當然는 것이다. 이와 같은 投資計劃은 勞働者 1人當 資本裝備率, 資本의 減價償却 등의 側面에서도 無理없는 計劃이 되어야 한다.

#### Ⅳ-2: 産業技術體系確立:

産業構造高度化의 進展이 새로운 主軸産業의 開發如何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主軸産業의 形成을 左右하는 技術革新이야말로 産業構造 高度化의 決定的인 要因이 될 수 있다. 슈페터 (J. A. Schumpeter)에 의하면 「資本主義經濟가 發展하여 온 것은 技術革新 때문인데 技術革新이야말로 新企業의 出現을 可能케 하고 經濟의 擴張을 推進하여 온 原動力이었던 것이다」<sup>18)</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갈브레이스(J. K. Galbraith)는 經濟發展의 原動力을 資本과 技術革新으로 보고 특히 技術革新은 資本의 效率을 決定짓는 要因임을 強調하고 있다.

技術革新에 의한 新商品의 開發, 商品의 壽命의 長期化, 競爭商品의 陳腐化 등 技術開發의 競爭은 實로 앞으로의 國際競爭을 관가름하는 重要한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의 國際貿易理論도 古典派 經濟學者들의 靜態學說에 立脚한 比較生産費說이나 헉셔·오린(Heckscher-ohlin)이 主張한 資源賦存狀態의 差異點에서 發生하기 보다는 技術的인 差異에 의해서 發生된다는 學者들이 많이 있다.

특히 키징 (Donald Keesing) 등의 主張한 바와 같이 技術革新이나 進歩가 國際貿易의 源泉인

18) J. A. Schumpeter: Capital, Socialism and Democracy, 1942.

을 強調하였다.<sup>19)</sup>

産業構造高度化가 工業生産의 增大와 工業部門比重的 增大를 뜻하는 것이므로 技術革新은 工業部門 全体에 걸쳐 不斷히 일어나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産業이 主軸産業의 役割을 나해야 한다면 主軸産業의 技術革新은 더욱 강조된다. 産業構造高度化와 經濟의 急遠한 成長을 위해서는 技術革新의 役割이 강조되지만 技術進步率이 生産性的 向上에 얼마만큼 寄與하고 있는 가라는 角度에서도 重要視해야 할 문제이다.

소로(R. Solow)에 의하면 第2次大戰前의 美國의 非産業部門에서는 技術進步率은 平均하여 年 1.5%였으나 技術進步率이 生産性成長率에 對한 比率은 實로 87.5%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資本裝備率의 增大가 生産性向上에 가져온 寄與率은 불과 12.5%였던 것이다<sup>20)</sup> 이로써 도 技術進步가 經濟成長과 産業構造高度化에 미치는 比重이 얼마나 크다는 事實을 알 수 있 다. <表Ⅲ-8> 참조

<表Ⅲ-8> 技術進步率 및 成長寄與度の 國際比較

國 名	期 間	技術進步率	技術寄與率	測 定 期 間
韓 國 (製 造 業)	1960~69	1.49	7.75	KCP
〃 (鑛 工 業)	1960~69	1.31	7.24	〃
美 國 (製 造 業)	1950~58	2.6	65.0	Balassa. B.
카 나 다	1949~60	1.4	37.8	〃
英 國	1949~59	0.7	21.2	〃
西 獨	1950~59	3.4	38.6	〃
日 本	1951~59	4.1	35.3	〃

資料: 科學技術處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技術進步率 및 寄與度測定」

이러한 事實 때문에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産業技術의 革新은 단순히 工業化促進과 重化學 工業化를 위한 産業技術의 進步에 그칠 수는 없다. 그것은 産業의 輸出競爭力을 強化할 수 있는 優秀한 技術導入과 開發採擇이 要求된다.

이러한 前提 밑에서 韓國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技術體系 確立이 要請된다.

① 技術人力教育体制의 構築

重化學工業과 輸出産業의 高度化는 그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國際水準의 技術人力 確保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技術人力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는 技術教育方法 및 內容을 改革하여 質的 向上을 期하고 國家發展에 副應할 수 있는 基礎研究를 助成하여 基本 技能을 習得 할 수 있는 科學教育中心体制로 改編하여야 할 것이며 技能者에 대한 國家資格檢定制度를 強

19) Donald B. Keasing: International Economics, progress and Transfer of Technical knowledge, A. E. R. May 1966, pp.249~252

20) 大韓商議: 産業合理化運動本部: 前掲書 p.127

化하여 質的水準의 向上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 ② 重化學技術 및 研究投資支援擴大

우리 나라는 技術導入에만 依存하던 段階에서 벗어나 自體의 科學技術基盤을 造成하고 自主的 技術革新을 이룩하여야 할 段階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輸出商品의 高度化와 多邊化를 期하고 輸出市場에서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하여는 自體의 技術開發과 研究投資가 擴大되도록 積極인 誘引政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現在에서는 企業의 自體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을 制定公布하고 稅制上的 特惠를 認定하고 있으나 導入技術을 獨自인 企業自體의 技術로 吸收하고 이를 持續적으로 開發할 수 있도록 研究準備金의 擴大를 認定하고 稅制上的 特惠도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外國의 技術應用이라는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品質改善工程 및 作業改善 등 大部分이 生産管理技術에 置重되어 있는 技術開發形態를 脫皮하고 新製品의 開發 등 製造技術의 劃期的인 革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研究開發投資에 對한 金融上的 支援과 租稅特惠를 부여하므로써 研究開發投資를 擴大誘發하여야 한다.

### IV-3. 産業체제의 整備와 系列化

우리 나라는 그동안 輸出伸張에 힘입어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왔으나 各 産業間의 聯關關係가 圓滑하지 못하여 輸出의 生産誘發效果를 減少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相互有機的인 聯關關係를 갖지 못하는 産業의 二重構造現象이 招來되었을 뿐만 아니라 各 産業이 總體的인 施設의 量的 擴大에만 치우친 나머지 各 産業의 內部에서 生産工程의 圓滑을 期할 수 있는 生産체제의 整備나 系列化, 專門化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不合理한 産業체제로부터 發生하는 過當競爭이나 原價高, 國際競爭力強化 등 우리나라 産業의 構造的 脆弱性的 要因을 제거하고 産業의 均衡發展과 聯關關係의 定立을 期하고 輸出을 持續적으로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産業의 系列化는 時急히 試圖되어야 할 課題가 아닐 수 없다. 一般적으로 産業체제를 整備하고 系列化하는 方法으로서는 ① 企業間의 垂直的 또는 水平的 系列化 ② 輕工業과 重化學工業間의 系列化 ③ 製品生産過程의 專門化 및 系列化 ④ 輸出産業組織을 刷新함과 아울러 經營合理化를 期하는 등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① 企業間의 垂直的 水平的 系列化<sup>21)</sup>

企業체제 속에서 生産의 合理化와 原價節減의 效果를 더욱 提高시키기 위한 各 企業間의 相互有機的인 聯關關係의 確立은 資本, 生産, 流通, 技術 등의 側面에서 보다 有利하게 評價될 수 있다.

大企業을 主軸으로 하여 形成되는 垂直的 系列關係는 獨占의 폐해라는 負(-)의 效果를 隨伴하기는 하나 生産工程의 合理化와 國際競爭力培養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輸出産業으로서 典型的인 形態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垂直的 系列關係라고 해서 完全히 獨占巨大企業에 從屬的인

21) 貿易 100號記念論文集 p. 68

로 關係를 맺는 것만은 아니며 子會社的인 大企業을 통해 下請中小企業들을 統制하여 資本 및 技術의 빈약을 補完할 수 있는 正(+)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垂直的 系列關係 뿐만 아니라 企業相互間의 水平的 系列化는 各 生産工程에 原料와 中間材, 中間材와 完製品, 部分品과 組立品の 生産關係에서 보다 効率的인 生産管理의 利點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側面에서 接近할 수 있는 系列化 方案이라 할 수 있다.

### ② 輕工業과 重化學工業間의 系列化

産業構造 再編成의 方向으로 重化學工業育成의 妥當性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은 相互有機的인 關係下에서 成長, 發展하는 것이기 때문에 重化學工業의 發展은 그 自體의 成長만으로서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것이다. 重化學工業製品의 커다란 需要源인 輕工業은 그에 所要되는 中間材와 設備維持에 必要한 施設 및 部分品을 重化學工業分野에서 調達되어야 하므로 이 兩者間의 系列體制確立은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과 輸出增進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製品生産의 專門化와 系列化

「아담·스미스」(A. Smith)가 分業論<sup>22)</sup>을 主張한 以來 現代의 모든 産業은 專門分野別로 生産工程을 割當하여 이의 合理化를 期하고 있다. 製品을 組立하는 過程에서 熟練度を 높이는 同時에 時間을 節約할 수 있고 專門的인 技術의 開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 生産의 專門化인 것이다.

한 企業內部에서 專門化를 통한 生産의 合理化를 도모함은 물론 企業相互間 系列體制를 確立하여 中間材 및 部分品 등에 대한 生産工程의 合理化方案을 研究하고 이에 대한 專門的 技術을 導入, 開發함으로써 輸出商品의 單位原價를 提高시킬 수 있는 보다 高級化된 製品을 生産할 수 있게 된다. 國際 競爭力 強化가 輸出增進의 基本 要素인 만큼 이를 위한 需要創造, 品質向上, 技術水準向上, 原價節減 등의 戰略的 手段으로서 製品生産의 專門化 및 이에 따른 系列體制 確立은 企業自體는 물론 技術的, 經濟的 社會全體的인 効率化面에서도 강력히 推進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 IV-4: 規模의 經濟性

大多數의 國內企業은 生産規模나 經營規模의 面에서 適正水準의 經濟規模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國內企業 가운데 比較的 大規模의 生産을 行하고 있다는 톱 레벨(Top Level)에 屬하는 小數의 大企業들도 外國의 同種業種의 企業規模에 比하면 大部分 過小規模의 狀態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 결과 國內의 資本이나 資源이 効率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企業의 原價를 相對的으로 높이거나 製品의 品質을 粗惡하게 하며 價格面에서는 不利한 形편일 뿐 아니라 特別 開放體制로의 移行過程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무엇보다 國際 競爭에 있어서의 劣位를 면하지

22)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Cannan's ed pp. 9~11

못하게 한다.

大規模生産은 大量生産의 法則<sup>23)</sup>(das Gesetz der Massenproduktion)에 의한 製品의 品質均一化, 生産原價의 引下 및 低廉化, 勞動生産性의 向上, 利潤의 增大 등 企業内部的 利益을 초래할 뿐 아니라 資源의 開發, 新市場의 開拓, 新技術의 開發과 利用, 新事業의 採用 등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推進에 있어서는 重大한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特히 大規模生産은 作業過程의 分化和 專門化를 통하여 生産要素의 能率을 增進시키며 經營面에 있어서 組織上의 節約을 초래한다. 그러나 規模의 擴大가 企業經營面에서나 國民經濟面에서 無制限의 利益을 結果하는 것은 아니다.

大規模化는 一定限度에 이르기까지 漸次 利益을 增大시키지만 그 限度를 넘으면 다시 不利益을 초래하는 바 企業規模의 問題는 一方的으로 大規模化를 追求함으로써 解決될 수 없으며 適正規模 또는 經濟規模를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

適正規模는 根本的으로 個別企業의 立場을 中心으로 한 經營面의 最低費用 또는 最大利益의 規模라는 면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資源의 最適利用이나 生産의 最高效率化라는 國民經濟의인 면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適正規模를 一定時点에서 관찰하는 靜態的 接近方法보다는 經濟條件의 變動을 바탕으로 하는 動態的 接近方法이 더욱 現實的 妥當性을 지니게 될 것이며 閉鎖經濟의 基準에 限定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開放體制에 對備하는 國際 競爭力 強化에까지 그 基準을 擴大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企業은 國內市場의 規模가 狹少하고 資本이나 資源이 不足하며 技術水準이 低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國內 經濟條件만을 고려한다면 企業規模가 全般的으로 過少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靜態的이고 閉鎖經濟的인 現在의 國內 經濟條件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開放體制로의 급속한 移行에 따른 國際市場條件의 變動과 動態的 條件을 감안하고 나아가서 國際 競爭力 強化를 이룩하기에 充分한 費用의 切減이라는 個別 企業의 면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極少數의 消費財企業을 例外로 하고는 全般的으로 過少規模의 狀態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現實이 이러함으로 企業規模의 問題는 자연 企業의 大規模化에 集約된다고 할 수 있다.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重化學工業化는 그것이 市場「메카니즘」을 通하던 또는 政策的 要請에 의하던 規模의 大單位를 가져 오고 企業集中度의 增大를 結果할 公算이 크다. 이러한 傾向은 産業構造高度化政策이 意慾的으로 造成되면 될수록 더욱 促進될 것이다. 따라서 産業構造高度化나 重化學 工業化는 規模의 大單位를 追求하면서 適正規模를 期하는 政策이라고도 볼 수 있다.

23) A. W. Stonier and D. C. Hague; A Text Book of Economic theory 1957, pp.216~222



## V

高度成長을 指向하는 새로운 産業政策은 産業構造高度化 및 再編成을 通하여 生産力 增進과 國際 競爭力 強化에 目標을 두고 基本的인 産業政策을 整備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經濟는 보다 더 國際競爭 基盤과 健全한 市場競爭 秩序에 基低를 둔 經濟體制下에서 새로운 開發戰略이 摸索되어야 하며 特히 民間企業의 새로운 成長意慾을 鼓吹시키는 轉換期가 되어야 한다. 그간의 長期經濟開發 計劃에 의하여 우리의 産業規模는 擴大되고 構造高度化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인 産業體制나 經濟規模는 國際 競爭力의 次元에서 比較할 때 그 隔差와 脆弱性이 顯著하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産業政策方向은 다음 과같은 當面 課題들을 段階적으로 解決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産業構造高度化를 展開하는데 聯關效果가 크고 內生的 推進力을 지니고 있는 重化學工業과 構造高度化를 先決하는 原料産業을 戰略産業으로 發展시키는 方案을 摸索하고 이와 並行하여 從來의 基幹産業에 對한 成長基盤을 整備하고 量的 擴大를 위한 主導的 役割을 質的 高度化로 그 機能을 再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産業의 再編成過程에서 輸出主導業種도 새로운 角度에서 選定되어야 하며 이와 併行하여 從來의 戰略輸出産業을 成長限界型, 成長擴大型, 및 長期開發型으로 區分하고 技術革新, 生産의 均質化, 投資規模, 大量輸出 등에 對應하는 生産의 大規模化 및 生産의 結合, 製品의 高級化 등 國際 競爭力의 強化를 위한 政策의 轉換이 있어야 한다.

세째 資源多消費型 産業을 止揚하고 資源集約도가 낮고 技術集約도가 높은 知識産業을 積極開發하여야 하며 特히 輸出産業을 資源의 海外依存도가 낮고 資源集約도가 낮은 産業으로 轉換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通해서 輸出産業의 國際 競爭力과 外貨稼得率을 提高하는 方向으로 轉換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産業構造高度化의 課題는 質的 바탕 위에 선 構造高度化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單純한 量的 擴大와는 달리 經濟的 效率性을 增進하고 經濟能率性을 強化하는 合理化的 基本姿勢에 立脚하여 産業의 系列化를 強化하여야 하며 企業 사이의 마찰을 排除하여 共同的 創造力을 開發하는 企業 또는 産業의 有機的 結果를 追求해 가는 産業의 「시스템」化를 通하여 質的 擴充을 摸索하여야 한다. 따라서 企業 및 産業組織을 整備하는 産業組織政策의 具體的인 展開는 聯關性和 相互依存性에 의하여 企業을 專門化하며 系列化 함으로서 前後方 連鎖效果擴大 및 産業의 規模經濟性을 實現하도록 한다.

끝으로 財源調達, 長期低利資金支援 및 技術投資의 特別支援 등 重化學工業推進에 따른 어려운 課題들을 集中的으로 支援할 수 있도록 重化學工業支援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하여야 하겠으

며 特히 産業合理化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는 政府와 民間經濟團體 및 關係業界를 包含하는 總合體制로서의 協力の 圓滑化를 期하기 위하여 合理化 施策의 運用效率化가 이루어 져야 한다.

## —Summary—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Ko Nam-wook*

The industrial policy directed to a high standard of growth should be organized well to reorganize the basic industrial structure so that it may step up the productive capacity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hrough the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The Korean economy should find a new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and sound market competitive order and especially become a turning point of stimulating the will to grow the private enterprises. Through long economic developing plans our industrial scope has been enlarged but by comparison of our present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cale we can show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m. Therefore, the solution to induce and regulate the new industrial system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economy policy.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solve the urgent problems as follows:

1. In order to complete the high degree of industrial structure, we should draw up a plan to develop raw material industries indispensable to heavy chemical industries into strategic industries and organize and expand the foundation of the past key industries, keeping pace with them.

2. In the course of reorganizing industry, the leading export industries should be chosen from a new view points. As well, the preceding strategic export industries should be separated into growth limit form, growth expansion form and long development form.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one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the large quantity products, the combination of products and the high-grade articles, the renovation in art, the homogeneity in products, investment scale expansion and the large quantity exports.

3.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not only block the industries spending much natural resources but also develop actively the industries needed a professional knowledge.

Especially export industr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ones which are depended

on abroad and demand low intensive resources.

4. The high development of industries should strengthen integraton of industries and remove friction among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rough enterprises developing common creative power, and industry system searching for the organic unity of industries our economy should expand the productive capacity in quality.

we can say to the conclusion the matter of policy for a high standard of industrial structure is not simple and involves several problems to solve.